

# 어린이 환자를 위한 Pastoral Care in the Treatment of Sick Children 사목적 배려

지난 2008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바티칸의 New Synod Hall에서 개최된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제23차 세계대회]에 필자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6명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는 해마다 이맘때에 개최되는데 올해의 주제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목적 배려(Pastoral Care in the Treatment of Sick Children)]였으며 67개국에서 약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대회에서 사용된 언어는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탈리아어였는데 4개 언어가 동시통역 되었고 38명의 발표자가 이 대회의 주제와 자신들의 전문영역과 연결시켜 소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전문영역의 범위는 신학적, 의료적, 윤리적, 심리적, 사회학적, 과학기술적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 대회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 다루어졌는데 첫 번째 '당면한 현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다루어졌던 소주제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1. 당면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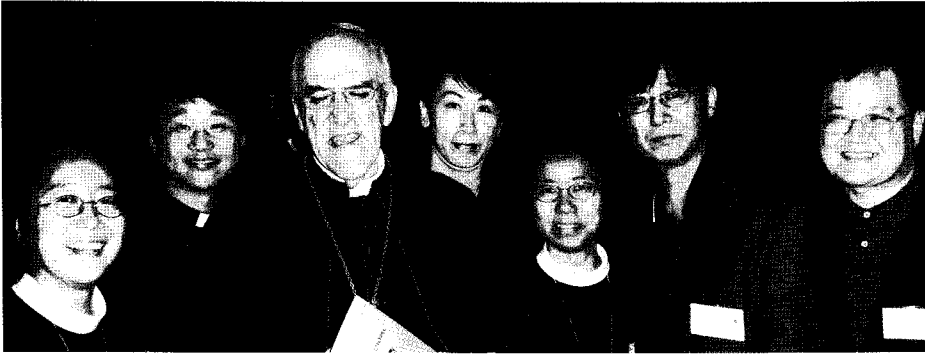
세계 어린이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있어서 직면한 현재 상황들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발표되었으며 소주제들로는 '세계 어린이 환자를 위한 돌봄의 역사', '세계 어린이 인구통계와 사망률 통계',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주요 질병', '어린이들의 질병과 세계화', 그리고 현재 어린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주제들로 '생활 방식', '영양', '기술적 변화', '소아학의 과학적 분야',



정무근 다미아노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장 / 예수회

'어린이들을 위한 새로운 약', '정치적 변화, 법률제정, 의료시스템과 어린이, 보험, 가족의 역할, 여가시간', '기후 변화, 수질오염, 환경오염과 관련한 WHO의 어린이 건강에 관한 의료초안' 등이었다.

이 소주제 내용들을 연결하여 간략하게 종합 정리하자면 '이 세계가 과거에 비하면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오고 있지만 현재 여러 가지 원인들(과학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인한 예전과 다른 생활 방식, 영양실조 혹은 비만,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로 인하여 오히려 과거보다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특히 과거에 비하여 에이즈에 감염되었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비인간화가 정책적으로도 어린이들을 질병의 위험에 노출시켜왔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등지에서 어린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여러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계의 미래가 되는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있거나 혹은 걸릴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 2.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세계 어린이들이 현재 직면한 심각한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계시]와 [계시에 관한 성찰]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계시] 부분에서는 '성서에 나오는 어린이 환자를 위한 돌봄', '교부의 가르침에 따른 어린이 환자를 위한 돌봄', '교회역사 안에서 어린이 환자를 위한 돌봄', '어린이 환자를 돌보는데 일생을 바친 성인들의 증거'가 발표되었으며 [계시에 관한 성찰] 부분에서는 '신앙, 자애 그리고 어린이 환자', '어린이 환자와 그리스도인의 희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어린이 환자', '종교 간의 대화;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탈현대화'가 발표되었다.

이 소주제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종합 정리하면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유명한 교부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사도직 역사 안에서 우리는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평생을 헌신한 성인들의 일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은 비단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류전체가 예전부터 스스로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 3.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계 어린이들이 현재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나서 실천적으로 우리는 어린이 환자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발표를 하였는데 네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발표되었다.

첫 번째 관점은 [종교적인 관점]이었으며 소주제들로는 '어린이 환자: 신앙 교리 및 교육', '어린이 환자와 성사', '심리학과 관련한 사목적 관점'을 다루었으며 두 번째 관점은 [생물 의학적인 관점]이었는데 '실험, 약물치료, 영양과 생활 방식', '치료, 후속 관리, 기관시설' 등을 소주제로 다루었고 세 번째 관점은 [정치 사회적인 관점]이었으며 소주제들로는 '대중매체',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의료 시스템, 법률제정, 이민, 경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들, 음식조절에 대한 정책, 사회위생', '어린이 환자와 그 가족', '의료부서와 어린이 환자'를 다루었으며 네 번째 관점은 [종교 기관들의 관점]으로서 '교구, 본당 그리고 어린이 환자', '수도회와 어린이 환자', '어린이 환자를 돌보는데 헌신하는 봉사자와 연합체', '어린이 환자를 위한 영적인 지지: 성사와 기도', '어린이 환자를 위한 방문' 등을 소주제로 다루었다.

이 소주제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린이 환자들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존중되어 져야하며 특히 어린이 환자를 위한 성사를 집행할 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특히 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들을 돌볼 때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사목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이 자녀들의 질병에 적합한 의료적인 처



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중매체 또한 조직적이고 기술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어린이 환자들을 위하여 각 교구 본당은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을 돌보고 있는 봉사자들을 위한 지지를 아낌없이 하여야 하고 각 수도회들도 자신들의 고유한 영성을 바탕으로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어린이 환자를 돌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겠다.

이번 대회 2박3일 동안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위에서 주마간산으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하였다. 덧붙여 이 모든 내용을 상징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할 수 있는 '어린이 환자를 위한 사목적 염려' 라는 소주제로 이 대회 시작을 알리며 Javier Lozano Barragan 추기경님(교황청 보건사목적회의 의장)께서 발표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여기에 옮기면서 한국의 어린이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하여 필자의 소견을 짧게 더하고자 한다. 추기경님께서는 마태오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그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마시오" 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가까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며 이것은 어린이 환자들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심혈을 기울여 보살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 발표내용을 들으면서 임상사목교육자로서 한국 어린이들의 교육현실이 떠올랐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우수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도한 교육정책과 이에 따른 지나친 교

육열 때문에 육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 최근에는 한 초등학생이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한 극단적인 뉴스까지도 접하게 되는 현실에 놓인 어린이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러한 교육현실에 노출되어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사실 필자는 이 대회를 참석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직면한 힘겨운 교육현실에 대하여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여겼을 뿐, 한국교회의 한 사제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시켜 성찰을 해본 적이 없었음을 반성하였다. 필자가 이 글을 적으면서 독자 분들에게 조그마한 바람이 있다면 이 문제를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심각하게 바라보며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점차 안타까운 교육현실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자고 초대하고 싶다.

끝으로 각자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필자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하였던 김영훈 교수님(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진료부원장), 김 임마꼴라파 수녀님(강남성모병원 원목팀장), 구현영 교수님(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박 마리빅토리아 수녀님(한국가톨릭의료협회 사무국장), 이진 선생님(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임상사목연구소 연구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교수님, 수녀님, 선생님!!! 이번 여정에서 가장 큰 은총이 되었던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저와 함께 했던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마치고 함께 [교황님을 공동으로 알현]한 것과 대회 첫날 로마가 마침 兩期여서 피자 가게 안에서 비를 겨우 피해가며 함께 서서 먹었던 피자 맛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